

패션 주기의 터닝 포인트 분석 -Vogue 1997년과 2002년도를 중심으로-

유 지 현[†]

상명대학교 생활환경학부 의류학전공

A Analysis of Turning Point of Fashion Cycle -Compare 1997 and 2002-

Ji-Hun Yu[†]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Sangmyung University

(2003. 12. 15. 접수 : 2004. 5. 22. 채택)

Abstract

This study was attempted to check period of a fashion cycle and to suggest its main-stream and sub-stream by analyzing the fashion trends presented in Vogue Korea between 1997 and 2002. A content analysis method was used to analyze 24 volumes. The result showed that the fashion trend of 1997's was a turning point from the simplicity, which was a trend up to 1996's, to the romanticism. The fashion trends of 2002 seemed to be also a turning point from the new-romanticism which was added the hippism to the romanticism continued from 1997, to the sporticism. The result confirmed that the main-stream of fashion theme have been continued for 5 years as a regular cycle system and could be repeated. It also verified that some sub-stream which was affected by social, cultural and political situation led the fashion changes.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be expected to reflect not only fashion design, merchandising and marketing strategy but also consumer purchase behavior of the future.

Key words: fashion cycle(패션 사이클), main-stream(메인 스트림), romanticism(로맨티시즘), sub-stream(서브 스트림), turning point(터닝 포인트).

I. 서 론

패션이란 어느 특정한 감각이나 스타일이 일정한 기간동안 대중에 의해 공유되는 것으로, 그 시대의 사회상을 반영하며 변화하는데 그 속에는 일정한 주기성과 반복성을 지닌다.

리차드슨과 크로버¹⁾는 1787년부터 1936년까지 약 150여 년간 잡지에 실린 여성 드레스의 스커트 길이와 폭, 허리라인의 높이와 둘레 그리고 넥라인의 장식에 대해 분석하여 이 기간 동안, 패션 주기의 기간이 약 100년에서 점차 짧아지고 있음을 규명하였으며, 패션의 변화에는 사회적, 정치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 교신저자 E-mail : jyu@smu.ac.kr

1) Jane Richardson and A. L. Kroeber, "Three Centuries of Women's Dress Fashions : Quantitative analysis", in *The Nature of Culture*, ed. A. L. Kroeber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2), pp. 358-372.

남재경, 금기숙²⁾은 1990년대 10년간의 패션 트렌드 테마를 분석하여 10년간에 나타난 패션의 경향을 자연주의, 세계주의, 미래주의, 복고주의로 분류 제시하였으며, 이들 트렌드는 독립적이기보다는 서로 상호 보완적이며 조화를 이루면서 변화된다고 하였다.

이봉덕, 양숙희³⁾는 20세기에서 21세기로의 전환기의 패션은 포스트모더니즘의 다원성과 불확정성이라는 기본 사상을 근간으로 생성·발전하여 전환기 패션 특성의 주류는 복고적이고 자연 친화적 경향을 띤다고 하였다.

위의 연구에서와 같이 패션은 거시적으로는 미시적으로든 변화를 하는데 그 변화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특정 기간의 패션이 새롭게 레트로 되는 것이며, 그 경향은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패션의 주기는 과거 100년 단위에서 점차 10년 단위로 그리고 현대에 오면서 그 주기는 더욱 단축되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동시에 다양한 패션이 공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1990년대 이후에는 1900년대 중·후반의 트렌드가 동시다발적으로 복고되면서 패션 주기에 흥미성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의구심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처럼 복잡하고 급변하는 시대인 오늘날의 패션 주기는 과연 얼마나 지속될까? 또 얼마나 많은 패션 테마가 한 사이클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조사하고자 시도되었다.

패션의 주기는 거시적인 방법과 미시적인 방법으로 분석 되어질 수 있다. 오늘날과 같이 모든 것이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에서는 미시적 분석이 더욱이 요구된다. 미시적 분석방법이 보다 섬세한 미래의 패션 경향을 예측할 수 있으며, 그 예측이 보다 정확하게 들어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 연구는 패션의 주기가 5년이라는 기존의 상식을 확인하고자 현재를 기점으로 역으로 5년전인 1997년과 2002년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동안 패션 주기의 터닝 포인트에 나타난 패션 트렌드의 특성을 분석하여 패션 주기의 시작과 종결에 나타나는 메인스트림과 서브스트림 간의 차이점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범위는 보그 코리아 1997년도 12권과 2002년도 12권인 총 24권으로 설정하였다. 보그 코리아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할 이유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높은 인지도와 대중성을 지니고 있으며, 패션 트렌드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공신력 있는 잡지이기 때문이다.

연구방법은 1997년도와 2002년도 보그지에 실린 패션 트렌드 관련 기사 및 이미지 컷을 중심으로 내용 분석법에 의해 분석하였다. 분석의 주관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전공학생 34명에게 1997년과 2002년의 패션 아이템별 이미지 컷을 빔으로 보여주고 특징을 서술하게 한 자료와 보그지에 서술된 내용을 연구자가 정리하였다.

분석 절차는 먼저, 1997년과 2002년도의 S/S 및 F/W에 나타난 아이템별 패션 특성 및 악세서리를 비교 분석한 후, 패션 주기 포인트의 시작 시기인 1997년부터 끝 시기인 2002년까지 5년간의 패션테마 이미지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중심으로 패션주기를 확인하고, 한 주기내의 메인 스트림과 서브 스트림을 비교 분석하는 순서로 이루어졌다.

그동안 패션 트렌드 관련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지만 대부분이 패션을 예술사조와 연계분석⁴⁻⁶⁾하거나 또는 패션에 나타난 -리즘(-주의, -풍)이나 이미지 분석⁷⁻¹⁰⁾ 등 이 주를 이루었는 뿐, 패션 주기의 터닝 포인트에 나타난 현상을 비교 분석한 연구는 이

2) 남재경, 금기숙, "1990년대 패션트렌드 분석연구-여성패션의 테마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5권 9호 (2001), pp. 1645-1654.

3) 이봉덕, 양숙희, "21세기 전환기 패션의 미학적 특성(제2보): 정량분석 방법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7권 1호 (2003), pp. 78-87.

4) 김민자, "1960년대 팝아트의 사조와패션", *한국의류학회지* 10권 1호(1986), pp. 69-84.

5) 조규화, 박혜원, "아르데코 패션의 색채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5권 4호(1991), pp. 381-392.

6) 조규화, 장미선, "로큰롤 패션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0권 2호(1996), pp. 323-335.

7) 양희영, 양숙희, "20세기 후반 패션에 나타난 절충주의적 경향", *한국의류학회지* 24권 4호 (2000), pp. 538-548.

8) 정연자, "현대패션에 나타난 민속풍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권 4호(1993), pp. 215-230.

9) 김민자, 이예영,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세기말적 신비주의", *한국의류학회지* 23권 8호 (1999), pp. 1206-1217.

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시론적인 의의가 있다고 본다. 또한 한 주기 동안의 패션 트렌드의 메인 스트림과 서브 스트림의 요소를 분석함으로써 과거의 패션 경향을 새로운 각도에서 정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현재의 패션흐름뿐 아니라 미래에 등장할 패션 트렌드를 보다 명확히 유추하고 예측하는 자료로서 가치가 있으리라 본다.

II. 이론적 배경

1. 근대이후 1996년 까지의 패션트렌드

르네상스 시대 이후 패션의 주기는 100년의 곡선을 그리며 르네상스 스타일, 바로코 스타일, 로코코 스타일의 특징을 보여 오다가 19세기에 접어들면서 그 주기는 25년 내외로 단축되어 1세기동안 앵파이어 스타일, 로맨틱 스타일, 크리놀린 스타일, 버슬 스타일로 4번의 터닝포인트를 보여 왔다. 그 후 현대에 들어서면서 패션의 주기는 10년으로 현격히 줄어들어서, 1900년대는 스커트 하단부가 좁은 호블스타일이며, '10년대는 폴셋을 거부하고 길어도 짧아진 실용성이 강조된 튜블러 스타일이며, '20년대에는 보어쉬하면서 걸리쉬한 스타일로 변화되어 이전보다 상당히 농축된 스타일이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30년대는 '20년대의 소녀스러움에 성숙함이 가미된 슬립 앤 롱 스타일이며, '40년대는 제2차 대전의 영향으로 밀리터리 스타일로 직선적이면서 딱딱한 경향을 띠었다. '50년대는 엘레강스한 다양한 스타일이 선을 보였으며, '60년대는 미니, 히피, 사이키 델릭 스타일이 동시 다발적으로 영세대들의 패션경향을 이끌어가기도 하였다. '70년대는 팝아트, 옵아트 영향으로 유니섹스 스타일, 핑크스타일이 주를 이루었으

며, '80년대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과 함께 앤드 로지너스 룩, 레이어드 룩 등 아방가르드 스타일이 주류를 이루는 동시에 스포티, 페미닌, 로맨틱 등 여러 가지 실루엣이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90년대는 에콜로지의 영향으로 에스닉 스타일, 그린자 스타일, 네오히피 스타일이 나타났으며, 여기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스트리트 패션이 유행하기 시작하였으며, 패션이 다시 복고적 경향을 띠기 시작하였다.

남재경, 금기숙¹⁷⁾은 1990년대 10년간의 패션 트렌드를 분석하였는데 이 기간 동안의 패션 트렌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991년에는 에콜로지, 프리미티브, 히피, 뉴에이지, 1920~30년풍의 복고, 미니멀리즘을 들 수 있으며, 1992년에는 프리미티브, '60~70년대와 '30~40년대로의 복고, 모더니즘으로 요약할 수 있다. 1993년은 에콜로지가 다시 1년 만에 부활했으며, 18세기의 로맨틱 무드가 살아났다.

에콜로지 경향은 1991년도 이후 1994년까지 지속되고 있으면서 한편에서는 뉴 밀레니엄에 대한 기대로 퓨처리즘이 떠오르고 있었다.

1995년도엔 핑크, 힙합, '20~30년대와 '50~60년대로의 복고풍, 미니멀리즘이 주를 이루어 5년만에 미니멀리즘의 재복고를 볼 수 있다. 1996년도엔 패션 주기의 터닝포인트로서 에콜로지가 새롭게 변모된 뉴에콜로지로 이어지며, '20~30년대와 '40~50년대, '60년대의 키치와 '70년대의 팝 등 현대패션의 부분적 공존이 레트로 되어 나타나고 있어 터닝 포인트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2. 1997년도 사회·문화적 배경 및 패션 트렌드

디자이너들의 작품에는 시대정신과 문화, 국제적

10) 전혜정, 나현신, "현대 패션에 나타난 역사주의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4권 4호 (2000), pp. 463-474.
 11) 이영재, 박민여, "1990년대 스트리트 패션에 나타난 해체주의 경향-S/S 프레타 포르테 컬렉션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4권 8호(2000), pp. 1155-1166.
 12) 박종희, 류숙희, "1990년대에 패션의 복고풍에 관한 고찰-1960년대 Mode의 재현을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4권 2호(1996), pp. 247-263.
 13) 이순홍, 변지연, "미니멀리즘이 현대패션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4권 3호 (1996), pp. 427-445.
 14) 김민자,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연구(1)-반미학, 열린패션을 중심으로-", *복식* 37권(1998), pp. 103-118.
 15) 박은주, 윤영자, "1990년대 패션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에 관한 연구", *복식* 43권 (1999), pp. 259-282.
 16) 이은숙, 김새봄, "현대 Retro-패션에서의 Hippie Style의 Dualism에 관한 연구", *복식* 11권 2호(2003).
 17) 남재경, 금기숙, *Op. cit.*, pp. 1645-1654.

인 상황 변화 등 다양한 이유들이 반영되어 나타난다. 과거 석유 파동이 있었을 때에는 중동 지역의 의상이, 뉴델리 올림픽이 개최되었을 당시엔 인도풍의 의상이, 몽고가 문호를 개방했을 시기에는 몽고 의상이 디자이너들에게 중요한 영감의 원천이 되었다.

1997년도의 패션에는 홍콩의 중국문화가 임박해진 시점에서 그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프라다를 선두로 한 많은 디자이너들이 중국의 전통 복식에서 영감을 받은 차이나이즈 에스닉을 선보였다. 하지만 1997년도 컬렉션의 경우 에스닉은 보다 다채롭고 풍부한 표정을 지녔다. 존 갈리아노는 인디언 스타일에 이어 집사풍과 러시아인 스타일을 발표하였으며, 라크르와는 화려한 원색의 아프리카 에스닉을 선보였다. 모스키노는 가부키 화장과 프린트된 드레스로 저페니즈 에스닉을 선보였으며, 드리스 반 노튼도 인도와 중동풍의 에스닉 룩을 대거 선보였다. 심지어 도나 카란과 베르사체까지 인도풍의 승려복에서 영감을 얻은 원피스를 선보여 가히 에스닉의 전성시대가 다시 돌아왔음을 입증해주는 듯 하였다¹⁸⁾.

1997년도에 디자이너들이 에스닉과 함께 선두로 내놓은 것이 바로 로맨티시즘이다. '90년대 중반까지 미니멀을 대표하던 밀라노의 프라다를 비롯, 파리의 헬무트 랭, 미국의 랄프 로렌까지도 로맨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모던 로맨스' '에스닉 로맨스' 라는 표현을 빌어 미니멀의 벽을 스스로 부숴버린 것만 보아도 패션계를 강타한 로맨틱의 바람이 얼마나 거센 것인지 짐작할 수 있었다.

미니멀에 중국풍의 에스닉을 가미하고 리치한 느낌의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자연스레 로맨틱을 받아들인 프라다, 랄프 로렌 역시 아프리카풍의 에스닉을 미니멀에 함세시켜 걸러풀하고 색서한 이미지를 강조했으며, 헬무드 랭은 '어번 엘레강스'라는 테마로 시드루 드레스, 비대칭 컷, 블랙 스트라이프 등을 선보이면서 로맨틱을 제안하였다.

칼 라거펠트는 클로에를 통해 '팝 로맨스'라는 깜짝 놀랄만한 프린트, 가벼운 레이스 직물, 불안정한 플랫폼 슈즈 등의 부드럽고 경쾌한 컬렉션을 선보였다.

비비안 웨스트우드 역시 부드러운 곡선의 여성적인 테일러링과 능억은 과일 프린트를 이용해 맵시 있는 색서함으로 로맨티즘을 표현하였다.

대표적인 로맨티스트인 존 갈리아노 역시 레이스와 프릴에 에스닉을 접목시켜 로맨티시즘을 선보였다.

크레이티브한 디자이너 마틴 싯봉 역시 로맨티시즘을 그너답게 표현했다. 커팅의 묘미를 살린 다양한 햄 라인, 특히 앞과 옆을 모두 다른 바이어스 커팅한 사폰 드레스가 주목을 끌었다.

프린트라면 자신있는 엠마누엘 용가로 또한 로맨틱으로 다시 돌아온 프린트로 이번 시즌에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표현하였다. 스트로베리와 파인애플이 들어간 그의 대담한 프린트는 무대를 로맨티시즘으로 물들였다.

크리스찬 라크르와 역시 18세기와 '80년대 로맨틱 패션을 믹스한 무대를 선보였다¹⁹⁾.

이상의 1997년 패션 트렌드 내용을 정리해 보면, 1990년대 중반의 미니멀리즘이 점차 쇠퇴하고 에스닉과 로맨티시즘이 서서히 시작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레이스와 프릴은 그 어느 때 보다 많이 등장했으며, 플라워 프린트는 무대 위를 온통 로맨티시즘으로 이끌 정도였다. 시드루는 1997년 가장 흔한 소재가 되었으며, 옷 위에 입는 코르셋과 라제리룩, 엠파이어 라인도 로맨티시즘의 중요한 요소로 부상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심플리 시티의 냉대에 보란 듯이 화려한 모습으로 등장한 로맨티시즘이 어떤 방향으로, 얼마동안 지속될 것인가를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초점이라 할 수 있다.

3. 2002년도의 사회·문화적 배경 및 패션 트렌드

2002년 봄·여름을 지배한 칼라는 "화이트"라 할 수 있다. 순수와 평화상을 상징하는 화이트가 캐워크를 점령한 데는 뉴욕 테러 사태의 영향으로 잠시라도 테러와 전쟁을 잊어보려는 디자이너들의 열망이 담겨져 있었을 것이다²⁰⁾.

2002년 트렌드는 1970년대 히피 스타일과 유러피안 히피풍의 로맨틱하면서도 턱서리한 아이템들로

18) 조명숙, "The Power", *Vogue*, 1997년 2월호, pp. 156-164.

19) 어명희, "vogue's view romanticism", *Vogue*, 1997년 1월호, pp. 93-103.

20) 전미경, "2002 Spring/Summer S.F.A.A.COLLECTION", *Vogue*, 2002년 1월호, pp. 97-107.

희망, 낭만, 그리고 행복으로 패션 메시지를 요약할 수 있다.

에스닉한 색감의 컬러풀한 프린트도 이번 시즌 트렌드이다. 이번 시즌에는 캐주얼한 셔츠나 팬츠, 혹은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로맨틱한 실루엣의 워피스들이 딱딱한 수트를 제치고 자주 등장하였다²¹⁾. 화이트의 강세와 더불어 선보인 컬러는 핑크와 옐로로써 로멘타시즘이란 강력한 트렌드가 두 컬러의 부활을 이끈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02년도의 패션 트렌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빅토리안 블라우스와 스트라이프, 페미닌 레이스, 데님 등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김시와 페전트의 아름다움이 보태진 로맨틱 스커트는 이번 시즌 최고의 트렌드 아이템으로 부상되었다. 앵겔 이미지의 로맨틱 아이렛 아이템도 필수이며, 프린지는 이번 시즌 가장 세련된 디테일중 하나로 뽑히고 있다²²⁾.

2002년 여름에는 로멘타시즘과 1970년대 히피 에스닉을 중심으로 리폼의 붐과 스트라이프 무늬, 월드컵패션이 나타났다. 또한 로멘타시즘의 요소인 포플과 러플, 플라워 프린트, 레이스, 나비무늬 등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히피와 함께 2002년을 대표하는 패션인 “에스닉은 자주, 패치워크, 수공예적인 것으로 요약된다. 이외에도 리폼의 붐이 일었는데 빈티지 매장에서 낡은 구제 청바지와 언택 목걸이, 옷을 잘라내고 레이스와 비즈를 달아 리폼한 티셔츠, 그리고 리바이벌된 빈티지 모델의 명품 가방 등이 그 것이다²³⁾.”

리폼과 함께 유행한 것이 스트라이프인데 작년 여름 선보인 마르니의 레가타 시크 룩에 나타난 스트라이프, 폴 스미스의 스트라이프,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굵은 블루 & 자주 스트라이프의 드레스는 시상식 의상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꿔놓기에 충분했다. 장 폴 고티에의 마린 스트라이프, 클레멘트 리베이로는 까샤렐을 위해 경쾌한 스트라이프에 플라워 프린트를 매치시켰으며, 돌체 앤 가바나는 간격이 일정하지 않은 무지개빛 멀티 스트라이프를 현란한 시

드루 블라우스에 매치시켜 그들만의 핑키한 섹슈얼리티를 드러냈다. 미소니 역시 이번 시즌에도 변함없이 변형 스트라이프를 선보였다. 이처럼 2002년 가을, 겨울을 위한 컬렉션에서 스트라이프는 또다시 디자이너들의 사랑을 받았다²⁴⁾.

또한 2002년에는 월드컵의 영향으로 월드컵 패션이 유행했다.

2002년이 되면서 월드컵 제품 공개의 첫 타이프를 꿰는 패션 하우스는 셀린이었다. 축구를 오브제로 디자인한 스포츠 웨어와 액세서리 컬렉션에 붙여진 이름은 ‘셀린 2002 컬렉션’. 축구화의 끈 장식을 넣은 축구공 모양의 숄더 백, 축구 경기에서 사용되는 레드카드와 옐로 카드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명함 지갑, 축구공에서 영감을 받은 원형 지갑, 레드 컬러 가죽 위에 셀린의 블루종 로고 자수 장식을 넣은 스니커즈 등으로 축구도 활동적인 럭셔리 글래머 룩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었다.

의상 역시 니트 탱크 톱과 진을 매치시킨 룩, 스웨이드 스커트와 끈 처리한 셔츠 등, 디자인 곳곳에서 축구의 이미지를 느낄 수 있다. 셀린의 뒤를 이어 다채로운 아이템의 월드컵 리미티드 에디션은 선보인 패션 하우스는 패라가모였다. 축구공, 축구화, 슈백(shoc bag), 축구화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된 스니커즈, 너플 백으로 구성된 이 특별한 창조물들은 스포츠의 황금기였던 1950, 1960년도의 이미지를 재탄생 시킨 듯 하다. 지난 프랑스 월드컵 때 축구공을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내놓아 화제를 일으켰던 루이비통이 2002년 월드컵을 기념해 선택한 아이템은 축구화 스타일의 스니커즈이다. 빈티지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됐는데, 양 사이트에 장식된 레드 가죽과 선명한 블루 컬러의 멋진 조화가 월드컵의 분위기를 고취시키고 있다. 루이비통 수집광들을 열광케 할 만하다. 까르띠에의 ‘파샤드 카르띠에’도 2002년 월드컵만을 위해 제작된 리미티드 에디션이다. 프라다의 이번 시즌 스포츠 룩엔 사커 삭스와 축구화 스타일의 스니커즈가 주요 액세서리로 활용됐다²⁵⁾.

21) 전미경, *Ibid.*, pp. 97-107.

22) 김의향, "Keep it, toss it or store it!", *Vogue*, 2002년 1월호, pp. 110-113.

23) 김의향, "Reform rush", *Vogue*, 2002년 5월호, pp. 200-205.

24) 이지연, "Stripe Season", *Vogue*, 2002년 5월호, pp. 174-175.

25) 김의향, "Viva, Fashion Worldcup!", *Vogue*, 2002년 6월호, pp. 134-137.

이상의 2002년 S/S 패션 트렌드를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 역시 히피, 에스닉 등이 가미된 로맨틱시즘이 강세였다고 할 수 있으며, 테러 사태의 영향으로 밝고 희망적인 분위기가 돋보였으며, 월드컵으로 인해 새로운 패션이 선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F/W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로맨틱시즘의 주류속에 히피와 에스닉이 복잡 다양한 갈등 구조를 이루면서 나타났다. 라거펠트 갤러리의 2002 F/W 컬렉션에서 선보인 하이힐 스틸레토 부츠와 매치한 타이트한 워싱 데님룩, 알렉산더 맥퀸, 마크 제이콥스 등 많은 디자이너들이 2002년 F/W 시즌 데님 팬츠에 보다 슬림한 라인을 사용했는데, 바지 앞날을 세우거나 허벅지 부분을 탈색 처리한 디테일이 히피와 에스닉을 돋보이게 만들고 있었다²⁶⁾. 또한, 고급소재의 울이나 실크, 100% 내추럴 혹은 인조, 합성섬유와의 혼방 등으로 고급스러운 부드러움과 시각적 볼륨감이 있는 경량의 울을 사용하여 코코샤넬의 화귀와 노스텔지어 분위기의 럭셔리 클래식을 나타내고 있다.

웨이스트드 바디, 플라운스와 화려한 주름장식의 슬러브, 폴스커트, 여기저기의 리본묶음 등과 같은 엘레강스 로맨틱의 로코코 스타일, Folkloric의 소박한 앵프로이더리, 에스키모룩, Ribbons and Bows라 하여 코트에서부터 로코코 스타일의 플라운스드 블라우스와 앵파이어 라인까지 모든 곳에 리본 타이가 보여진다.

이상에서 살펴본 2002년도의 패션의 테마 이미지를 요약해보면 한마디로 집시, 페전트, 히피가 조화된 로맨틱시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III. 1997년 과 2002년의 패션트렌드 터닝포인트의 특성 비교

1. 아이템별 비교 분석

1) 1997년과 2002년 봄/여름

패션 주기 터닝 포인트의 시작인 1997년과 끝으로 정한 2002년 S/S 시즌의 의류 아이템을 바지, 스

커트, 블라우스, 원피스로 분류하여 각각의 트렌드 경향을 미시적인 관점에서 비교하고자 그 대표적인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997년 S/S엔 바지가 크게 유행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보이는 특성들은 라인이 심플하고 단순한 일자 스트레이트의 바지를 볼 수가 있는 반면, 2002년도에는 히피패션의 영향으로 데님소재의 벨보텀이 많이 나타났으며 옆선에 자수나 징을 박거나 프린트를 달고 장식적인 요소가 많은 벨트를 함께 매치시켜 히피적인 성향을 띠고 있었다.

1997년 S/S시즌 스커트를 살펴보면 심플한 라인에 플라워 프린트, 레이스의 장식이 보이기는 하나 대체적으로 단순한 베이직라인과 타이트한 스커트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이에반해 2002년 S/S 스커트는 라인이 복잡하고 과감하며 에스닉하고 히퍼스런 느낌이 가미된 프릴 장식의 스커트나 램라인이 일정하지 않은 스커트, 레이스 소재나 쉬폰 소재의 티어드 스커트가 두드러진다.

다음으로 블라우스를 살펴보면 1997년 S/S 시즌에는 쉬폰소재와 보일소재를 사용하고 플라워 프린트가 들어간 비대칭 라인의 블라우스, 러플장식이 살짝 들어간 블라우스가 많이 보여지고 있다. 반면 2002년 S/S에는 쉬폰소재와 시드루 소재, 레이스 등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러플, 프린트 등이 1997년에 비해 굉장히 화려하고 많이 들어감으로서 로맨틱하고 여성적인 느낌이 강조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원피스를 살펴보면 1997년 S/S시즌에는 심플하고 슬림한 라인에 약간의 시퀀드나 비즈장식, 화려하지 않은 심플한 라인에 플라워 프린트를 넣어 은은히 매치되는 조화를 추구하였다. 또 앵파이어 라인에 레이스를 달아 심플하면서도 여성스러운 느낌으로 표현한 원피스 등을 볼 수 있다. 반면 2002년도 S/S시즌에는 부드러운 시드루 소재에 플라워 프린트와 셔링과 러플장식으로 로맨틱한 분위기와 함께 술장식, 깃털 목걸이 등으로 히피적인 느낌을 더해준 원피스가 눈에 띈다.

1997년과 2002년 봄/여름 시즌의 아이템별 패션경향을 정리해 보면 <표 1>과 같다.

26) Helene Kang, "The Dicine Denim", *Vogue*, 2002년 9월호, pp. 214-223.

〈표 1〉 아이템별 비교(S/S)

	1997년 S/S	2002년 S/S
바지	심플하고 단순한 일자 스트레이트(미니멀)	자수나 정을 박거나 프린지를 달은 벨모텀팬츠(히피)
스커트	심플한 라인에 플라워 프린트, 레이스 등으로 장식(베이직, 타이트 스커트)	많은 프릴장식의 스커트나 헵라인이 일정하지 않은 스커트, 티어드 스커트(에스닉, 히피)
블라우스	비대칭 라인의 블라우스, 플라워 프린트, 약간의 러플(미니멀, 로맨틱)	많은 러플과 프릴 등이 강화된 화려한 장식(로맨틱, 페미니)
원피스	심플하고 슬림한 라인에 시퀸이나 비즈장식. 심플한 라인에 플라워 프린트(심플, 페미니)	플라워 프린트와 많은 셔링과 러플장식, 술장식(로맨틱, 히피즘)

2) 1997년과 2002년 가을/겨울

1997년과 2002년도 가을 겨울 패션 트렌드를 바지, 자켓, 코트, 스커트, 셔츠로 나눠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997년 가을·겨울 패션트렌드에는 어두운 컬러와 남성적 이미지의 체크로 깔끔하며 중성적 이미지를 강조하고 부드러운 곡선이 없이 일직선 라인의 팬츠가 선보였다. 반면, 2002년의 바지는 화려한 무늬와 다양한 길이로 꾸뛰르적 감각을 나타낸 데님 팬츠가 강세를 보였고 부츠컷과 핀턱 스타일 그리고 구부림이 팬츠가 유행하였다.

1997년도 자켓은 여성스러운 아세서리나 단추 사용을 제한하고 긴 직사각형의 딱딱한 느낌의 실루엣과 패드가 적각으로 들어간 각진 어깨와 가죽소재를 사용하여 이 시즌의 이미지를 강조하였다. 이에 반해 2002년도 자켓은 어깨에 퍼프를 넣어 여성스러움을 강조하였고, 플라워 프린트 등의 화려한 무늬가 자켓에도 사용되었고, 피터팬 칼라와 여성스런 단추의 사용으로 2002년 가을 겨울 패션 경향의 키워드인 로맨틱시즘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1997년도 코트는 약간 넓은 어깨의 박스형 부채색 코트와 대체적으로 문양은 최소화하고, 하얀색 체크에 부드러운 곡선 없이 남성적인 이미지를 강조하였고 땅에 끌릴 정도로 긴 맥시코트와 컬러풀한 뱀피 프린트를 사용한 가죽코트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2002년도 코트는 화사한 색깔과 고급소재의 사용으로 럭셔리한 이미지를 강조하며 프린트 장식식으로 히피적인 이미지면서 여성스러움을 강조하였다.

1997년도의 스커트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플레이어가 아닌 타이트한 일자형의 롱 스커트와 가죽소재의 베이직 스커트와 맥시코트 안에 입을 수 있는 미니스커트가 보여졌다. 반면 2002년도 스커트는 바지와 같이 길이가 다양하며 프릴과 레이스 등의 장식이 많고 화려한 디자인이 두드러지고 있다.

1997년도의 셔츠는 어깨에 패드가 들어감으로써 남성복에서의 디테일을 따온 듯하다. 뷔 스트라이프 셔츠나 산뜻하게 박음질된 칼라와 커프스는 심플함을 더하여 젠더리스 룩을 느끼게 하였다. 2002년도에 있어서의 여성스러움의 표현은 셔츠에서도 계속되었다. 블라우스 형태와 셔링, 러플, 비즈장식 그리고 페이즐리와 플라워 프린트의 사용으로 로맨틱시즘을 나타낸 칼라와 커프스 등의 다양한 연출이 눈에 띈다.

1997년과 2002년의 아이템별 패션 경향은 〈표 2〉,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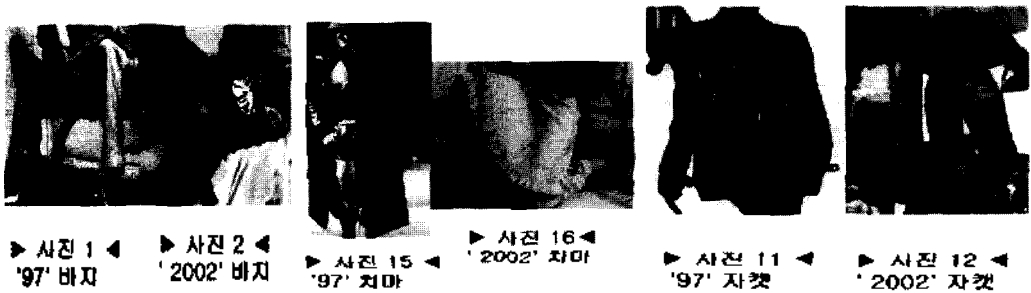
2. 악세사리 비교 분석

1997년 악세사리를 살펴보면 로맨틱시즘의 영향이 보이기는 하나 장식적인 요소가 거의 배제되었고 심플하거나 아예 악세사리가 없는 경우가 많다.

S/S시즌에 신발은 스트랩 샌들, 슬리퍼 샌들, 웨지 힐등이 유행을 했는데 잡지 광고에서는 스트랩 샌들이 가장 많이 보여진다. 가방은 S/S 시즌에 많이 볼 수 있었던 스트로 백과 독특한 손잡이에 화려한 칼라의 남작한 flat handbags 등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여름철의 선글라스를 들 수 있는데 1997년도에는 테가 있고 테가 두꺼운 선글라스가 많고 색도 진한 것

〈표 2〉 아이템별 비교(F/W)

	1997년 F/W	2002년 F/W
바지	어두운 컬러. 부드러운 곡선 없이 일직선 라인의 팬츠	화려한 무늬와 다양한 길이의 데님팬츠. 부츠핏, 핏 스타일. 구부림이 팬츠
자켓	긴 직사각형의 실루엣. 패드가 직각으로 들어간 각진 어깨 가죽소재 사용	어깨에 퍼프 사용. 베이즐리, 플라워 프린트 등의 화려한 무늬. 피터팬 칼라
코트	약간 넓은 어깨와 박스형 무채색. 문양의 최소화. 맥시코트. 질러풀한 가죽소재 사용	화사한 컬러와 고급소재의 사용. 프린지장식으로 하피석 이미지면서도 여성스러움 강조
스커트	타이트한 일자형의 롱 스커트. 가죽소재의 베이직 스커트와 미니스커트	길이의 다양함. 프릴과 레이스 등의 장식. 화려한 디자인의 스커트
셔츠	어깨에 패드가 들어감. 핀 스트라이프 셔츠. 깔끔하게 박음질된 칼라와 커프스로 심플함 강조	블라우스 형태의 셔츠. 셔링과 러플, 비즈장식. 베이즐리, 플라워 프린트 사용



〈그림 1〉 1997년 : 2002년의 아이템별 패션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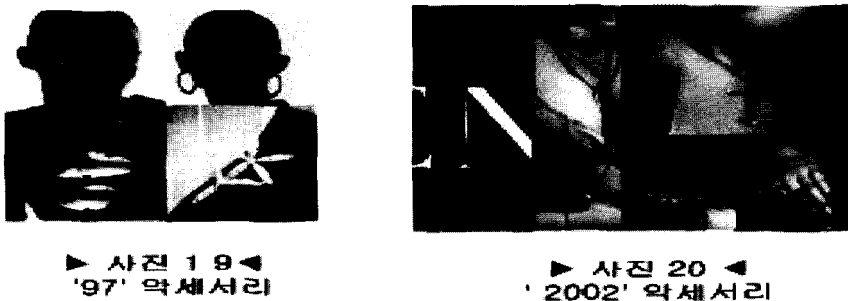
이 주류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2002년의 악세사리를 살펴보면 귀걸이 목걸이등이 굉장히 화려하고 장식적인 것을 볼 수 있으며 색도 칼라풀하다. 또 히피의 영향으로 가죽으로 된 프린지 벨트가 특히 많이 나타났으며 신발

은 S/S시즌에는 스트랩 샌들이 강세를 보였다.

이처럼 2002년도의 악세서리 경향은 1997년에 비해 화려하고 세부적인 디테일들이 많이 첨가되어 히피적이며 로맨틱한 경향을 띠고 있다.

이상을 정리해 보면 〈표 3〉, 〈그림 2〉와 같다.



〈그림 2〉 1997년 : 2002년의 악세서리 경향.

〈표 3〉 약세서리 비교

	1997년	2002년
약세서리	장식적인 요소 및 약세서리 배제	화려하고 장식적인 귀걸이·목걸이·반지, 프린지 벨트
신발	스트랩 샌들, 슬리퍼 샌들, 웨지힐	스트랩 샌들, 웨지힐
가방	스트로 백, flat hand-bags	스웨이드와 대님 소재에 프린지 장식된 백

IV. 1997년과 2002년의 패션테마이미지 터닝포인트 분석

1997년 패션테마는 1990년대 중반까지 강세를 보였던 아방가르드와 미니멀이 퇴조하고 낭만주의가 복귀하는 시점에서 예술사조에서의 낭만주의의 한 경향인 이국적인 취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러한 예술사조적 흐름과 맞물려서 홍콩의 중국반환이라는 또 하나의 변수는 디자이너로 하여금 중국의 전통 복식에 관심을 모았고, 그 결과 차이니즈 에스닉을 선보이게 되었던 것이다.

디자이너들은 스타일의 터닝 포인트에서 또 다시 에스닉이란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패션테마를

끌어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에스닉 무드는 라틴적 무드로 시작되어 오리엔탈로 이동하다 다시 히피로 자연스럽게 회귀하고 있다.

에스닉 분위기와 함께 선두에 나타난 것이 로맨틱티시즘이다. '97년도에 로맨틱티시즘은 과거와는 달리 모던로맨틱, 팝로맨틱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로맨틱티시즘은 부드러운 히피풍을 유지하다 2001년도에 수 많은 밀리터리 관련 영화의 영향으로 로맨틱한 밀리터를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밀리터리적 분위기는 그해 9월 11일의 테러 사태로 곧 사라지고 만다. 아마도 이때 테러 사건이 없었다면 밀리터리가 패션 테마로 부상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밀리터리는 패드로 그 수명을 일단락 짓고 다시 평화와 안정을 상징하는 로맨틱으로 살아났으며, 이런 경향이 2002년에는 여러 요소와 혼합된 히피풍의 로맨틱으로 발전하다 과거 18세기 로코코의 럭셔리와 페미닌이 가미된 뉴로맨티즘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으며, 여기에 60년대의 미니멀과 아방가르드가 서브 스트림으로 대두되면서 5년만에 패션주기의 터닝을 볼 수 있다.

1997년의 집점인 1996년과 2002년의 집점인 2003년까지의 패션테마의 변화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에서의 같이 일정 기간의 패션 테마는 대체

〈표 4〉 1996~2003년까지의 패션테마 이미지 변화표²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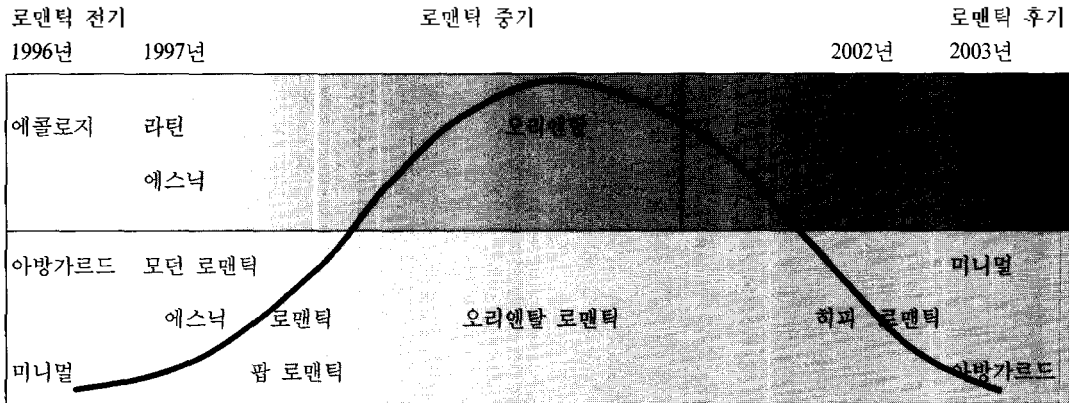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뉴에콜로지	에스닉 라틴	에스닉 오리엔탈	오리엔탈	에스닉	에스닉 몽골	에스닉 히피	미니멀
아방가르드 / 미니멀	내추럴 히피 / 뉴로맨틱	내추럴	내추럴 / 뉴히피	뉴 히피	뉴밀리터리 (영화영향) / 로맨틱	히피풍의 로맨틱 / 노스텔지어	뉴로맨틱 / 페미닌 / 아방가르드
레트로 20-30'S 40-50'S 60'S키치	레트로 60'S POP 70'S	레트로 40'S MILITARY	레트로 16세기	레트로 20-30'S 60-70'S	레트로 40'S 60-70'S 70-80'S	레트로 50'S 70'S, 80'S 18세기	레트로 60'S
하이테크놀로지	사이버	퓨처리스틱 심플	미니멀리즘 사이버-하이 테크	테크노	믹스&매치 그런지	라폼(스트라이프) 월드컵 패션, 럭셔리 클래식	스포티즘

27) 남재경, 금기숙 (2001)의 연구는 1991~2000년까지의 테마 이미지만이 제시되어 있으며, 1997년, 2001년 그리고 2002, 2003년의 자료는 본 연구자가 수정·보완한 것임.

로 4가지로 그룹핑되며, 이들 테마 속에는 메인과 서브가 공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중 한·두개의 테마는 메인 스트림을 이끌면서 장기간 지속되지만 나머지 테마들은 매년 일어나는 사회·문화적 현상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일시적 또는 단기간적 유행을 일으키는 서브 스트림을 제시한다. 즉 패션 주기는 5년간의 메인 스트림 속에서 매년 새로운 테마가 가미됨으로서 조금씩 그리고 서서히 변화되면서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의 <그림 3>은 1996년부터 2003년까지의 메인 테마의 변화를 정리한 것이다. 즉 패션주기의 터닝 포인트 시작이 1996년과 1997년 사이이며, 이 주기의 끝이 2002년과 2003년 사이임을 알 수 있다.

<그림 3>에서와 같이 에스닉과 로맨틱이 1997년과 2002년 간 패션 1주기의 메인 스트림이며, 여기에 또다른 서브 스트림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그 첫 번째 서브 스트림은 레트로라 할 수 있다. 즉 1997년에는 '60, '70년대의 특징이 레트로 된 반면, '98년도엔 '40년대로, '99년엔 세기말의 불안이 16세기의 멀티문화적현상으로 복고되어 나타났다. 새천년인 2000년도엔 다시 '60년대의 록 성향이 2001년도엔 미니, 앤드로 지너스로 믹스엔 메치되어 그런지룩으로 이어졌으며, 2002년도에는 여기에 18세기의 여성적이며, 럭셔리한 페미닌 성향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 <표 5>는 첫 번째 서브 스트림인 패션의 레트로 연대를 매트릭스로 정리해 놓은 것이다. 표에서와



<그림 3> 메인 스트림 : 에스닉 & 로맨틱.

<표 5> 서브 스트림 1 : 레트로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1980년대					*			
1970년대		*			*	*	*	
1960년대	*	*			*	*		*
1950년대	*						*	
1940년대	*		*			*		
1930년대	*							
1920년대	*							
18세기							*	
17세기								
16세기				*				

같이 97년부터 2002년 1주기 까지 가장 자주 등장한 복고풍은 '60년대와 '70년대였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서브 테마는 그해에 짧게 유행했다가 곧 사라지는, 그렇지만 그 강도는 그 무엇보다도 강한 패드라 할 수 있다. 이를 포인트 패션테마라 명명한다.

'97년도의 패드는 사이버룩으로 시작되어 점차 심플 미니멀로 변하다가 새 밀레니엄에는 테크노 스타일로 발전하였다가 여러요소가 믹스된 빅스엔 배치 현상을 보였으나 2002년에는 월드컵패션이 대 유행을 하였다.

<표 6>은 패션 1주기 동안의 포인트 패션테마를 정리하여 놓은 것이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패션의 메인 스트림 기간은 여전히 5년 정도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이를 보다 짧게 느끼고 있는 것은 패션의 메인 스트림속에 다시 2-3개 이상의 서브 스트림이 각기 다른 특성을 보이면서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라 본다.

물론 이들 서브스트림은 메인 스트림보다 그 해에 일어나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성을 예측하기 힘들 수도 있다.

하지만 메인 스트림은 5년의 주기를 유지하면서 보다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었으며, 이는 보다 예측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V. 결 론

본 연구는 패션주기의 터닝포인트를 5년으로 가정하고 현재로부터 역으로 5년전인 1997년과 2002년을 분석 기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동안의 패션트렌드 및 패션테마의 터닝포인트 경향을 비교 분석한 것이다.

본 연구 결과 1997년은 96년까지의 경향인 심플리시티에서 로맨티시즘으로 넘어가는 터닝 포인트

였으며, 2002년은 97년 이후 지속되어온 로맨티시즘에 히피즘이 가미된 뉴로맨틱에서 서브 스트림이었던 스포티즘이 메인 스트림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터닝 포인트라 할 수 있다.

차이점이 있다면, 1997년은 세기 말 적인 영향으로 시퀀드라는 심플리시티를 대표할 수 있는 메탈릭한 소재와 심플한 실루엣이 주를 이루면서 여기에 에스닉이 가미되기는 했지만 이것이 복합적으로 혼합되었다기 보다는 서로 다른 분위기로 연출되었다. 반면 2002년에는 로맨티시즘이 부각되면서 여기에 히피, 에스닉이 혼합된 뉴로맨틱으로부터 스포티즘이 부상되는 새로운 터닝포인트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1997년은 패션계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하여 로맨티시즘이 시작되었고, 2002년에는 9.11 테러 사태의 영향을 회상적이고 따뜻한 분위기로 돌아가기 위해 로맨티시즘이 재현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메인 스트림은 이처럼 일정 주기를 지니며 반복되어 나타나며, 여기에 당시의 사회·문화·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은 몇 개의 서브 스트림이 패션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과거와 현재의 패션 흐름을 파악함으로써 미래의 패션 경향을 예측할 수 있으며, 최근 패션트렌드와 싸이클을 2-3년, 또는 매시즌이라 보는 견해도 있지만 패션 테마의 메인 스트림은 여전히 5년동안은 지속되고 있음을 본 연구로부터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패션 디자인, 머천다이징, 마케팅전략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의복 구매 및 착장 행동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 그 의의를 찾을 수가 있다.

본 연구는 패션주기 터닝포인트 분석 시론으로서 분석 대상의 기간 및 대상 범위가 짧고 광범위하지 않은 것이 제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러므로 후속연구로 이전 기간 및 이 후 기간 동안의 자료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제시된다.

<표 6> 서브 스트림 2 : 포인트 패션테마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하이테크 놀로지	사이버 패션	퓨어 / 심플패션	미니멀 / 사이버 / 하이테크패션	테크노 패션	믹스 & 매치 패션	월드컵패션 / 리폼 / 스트라이프	스포티 패션

참고문헌

- 강정하, 금기숙 (1996). "현대패션에 표현된 페미니즘에 관한 연구." 복식 30권.
- 김민자 (1986). "1960년대 팝아트의 사조와 패션." *한국의류학회지* 10권 1호.
- 김민자 (1998).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연구(1)-반미학, 열린패션을 중심으로-" 복식 37권.
- 김민자, 이에영 (1999).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세기말적 신비주의." *한국의류학회지* 23권 8호.
- 남재경, 금기숙 (2001). "1990년대 패션트렌드 분석연구-여성패션의 테마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5권 9호.
- 두산동아출판사. *VOGUE KOREA* 1997년 1월~12월호, 2002년 1월~11월호.
- 박은주, 은영자 (1999). "1990년대 패션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에 관한 연구." 복식 43권.
- 박종희, 류숙희 (1996). "1990년대에 패션의 복고풍에 관한 고찰-1960년대 Mode의 재현을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4권 2호.
- 양희영, 양숙희 (2000). "20세기 후반 패션에 나타난 질충주의적 경향." *한국의류학회지* 24권 4호.
- 유태순, 박휘숙 (1993). "패션에 나타난 POP사조중 에로티시즘적 표현에 관한 연구." *여성문제연구* 21권, 대구효성카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유태순, 홍종대 (1994). "예술의 양식이 패션 스타일에 미친영향-1985-1992까지 유행 스타일을 중심으로-" *산업미술* 4권, 대구효성카톨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이순홍, 변지연 (1996). "미니멀리즘이 현대패션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4권 3호.
- 이영재, 박민여 (2000). "1990년대 스트리트 패션에 나타난 해체주의의 경향-S/S 프레타 포르테 컬렉션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4권 8호.
- 이은숙, 김재복 (2003). "현대 Retro-패션에서의 Hippie Style의 Dualism에 관한 연구." 복식 11권 2호.
- 이효진 (1994). "현대패션에 나타난 에로티시즘에 관한 연구." 복식 23권.
- 임영자, 한윤숙 (2001). "현대패션에 표현된 하이브리드 경향 연구-1990년대 후반을 중심으로-" 복식 51권 5호.
- 전해정, 나현신 (2000). "현대 패션에 나타난 역사주의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4권 4호.
- 정삼호 (1997). "1990년대 현대 패션의 흐름을 통해 고찰한 패션 스타일에 관한 연구-1990-1995년의 여자복식을 중심으로-" *가정문화논총* 10권, 중앙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 정연자 (1993). "현대패션에 나타난 민속풍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권 4호.
- 정연자 (1996). "현대패션에 표현된 에콜로지에 관한 연구." 복식 30권.
- 조규화, 박혜원 (1991). "아르데코 패션의 색채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5권 4호.
- 조규화, 장미선 (1996). "로큰롤 패션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0권 2호.
- 한미경, 은영자 (2001). "1990년대의 히피패션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제9권 2호.
- McDowell, Colin (1984). "Twentieth Century Fashion." *Frederick Muller*.
- Richardson, Kroeber (1952). "Three Centuries of Women's Dress Fashions : Quantitative analysis." in *The Nature of Culture*. ed. A. L. Kroeber,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Industrial Information Network(2002년 5월 3일 검색). "멀티미디어 패션 디자인: 용어 사전"[온라인 게시판] ;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 @ <http://www.iin.co.kr/imipl/fe/dictionary/dictionary.html>
- Sesangnubi(2002년 10월 11일 검색). "패션어란?" "패션용어" "패션상식" [온라인 게시판] ;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 @ <http://scsangnubi.hihome.com/index.html>
- eVOGUE(2002년 11월 4일 검색). "Trend watch (200201-200212)", [온라인 게시판] ;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 @ <http://www.vogue.co.kr/evogue/fs/tw/200201.htm>
- fashion study(2002년 10월 17일 검색). "2002 S/S트렌드 컬러 white"[온라인 게시판] ;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 @ http://fashionstudy.co.kr/main2/ingo_trend_view